

나주SRF 일단락 됐지만... 수백억 손배소 '힘로'

나주·한남 합의 불구 민사 2건 남아
가동 중단 손실보전 극심한 입장차
사업개시 신고 처리 지연 손해배상
도 "합의체 구성... 협의 진전되길"

나주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 SRF) 가동 문제가 극심한 진통 끝에 해결점을 찾았지만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이 남아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2일 나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는 나주SRF 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을 취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나주SRF의 사용 허가를 놓고 벌인 양측의 소송은 끝났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2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한남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한 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시 나주시는 한남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등 당초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한남은 이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3개월간 약 42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 측은 당초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2017년 12월부터 발생한 손실액을 나주시가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남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W

나주SRF는 지난 2017년 시험가동 후 지난해 3월 재가동 시점까지 약 5년간 완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남의 주장대로라면, 누적 손실액은 한해 약 180억원으로, 5년으로 환산하면 900억원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한남이 제시한 손해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나주SRF가 가동 중단 기간동안 완전 중단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가동한 점, 나주SRF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민간 거버넌스 공문화 기간으로 인해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시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민사소송 1건은 한남이 지난 2021년 7월에 소송한 사업개시신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한남은 지난 2020년 12월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SRF 사업개시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나주시가 환경과 관련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반려했다. 한남은 사업개시 지연에 대한 71억원을 나주시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해당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적법한 행정상의 절차에 따른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한남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시가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한남은 아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완전히 취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한남도 공기기업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나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면 취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교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광주지역 초등학교가 대면 입학식을 실시한 2일 광주 동구 학운초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치고 신기한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광주FC "홈 개막전 보러오세요"

다중집합장소 찾아 길거리 홍보
5일 FC서울전 경품·이벤트 풍성

프로축구 광주FC가 2023시즌 홈개막전 붐업을 위해 게릴라 홍보에 나섰다. 광주FC는 2일 광주 시청 광장에서 출근 중인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 활동은 오는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2023시즌 K리그1 홈개막전과 2023 구단 비전인 '시민에게 믿음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보 활동에는 광주FC 임근훈 경영본부장 등 구단 직원들 뿐 아니라 광주시 김광

진 문화경제부시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등 시청 관계자와 오는 4월 7일 개막을 앞둔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도 함께 참여했다. 광주는 홈경기 붐업과 관중 유치를 위해 홈경기 전날까지 게릴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맞아 무등산과 광주의 관문인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및 송정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1년 만에 1부리그로 승격한 광주는 5일 2023시즌 홈개막전에서 풍성한 경품과 다양한 개막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프타임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 TV, 아이패드 미니, 애플워치, LG시네마빔, 닌텐도,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또 선수단이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해 팬들과 음악 취향을 공유하고, 부주장이자 래퍼 이순민의 첫 앨범인 '제브라(Zebra)' CD 50장을 1번게이트의 MD샵에서 한정 판매한다. 앨범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및 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광주는 선착순 4000명에게 광주FC 클래퍼를 증정하며 1번게이트에서 타투 스티커 이벤트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직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2번게이트 광장에서선 선수단 팬사인회와 선착순 300명에게 교촌치킨 '블랙크릿' 시식회를 연다. **▶관련기사 15면**
최동환 기자 cdstone@jinilbo.com

제35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박소영 ▶장아현

광주사람들 (504/1000)
강진원
유스퀘어문화관 무대감독
▶관련기사 16면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모집 인원】 30명 내외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